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
2020년 2월 5일

인 사 말 씀

검찰
PROSECUTION SERVICE

검 찰 총 장

I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검찰인권위원회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에서 높은 덕망과 식견으로 존경받는 여러분들을 위원님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I

그간 검찰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최소화,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검찰은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와 검찰개혁을 위해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을 포함하여 검찰업무와 관련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논의와 사고의 중심에 '인권'이라는 가치가 놓여있음을 의미합니다.

학계, 법조계, 언론·문화·종교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인권에 높은 관심을 가져온 여러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조직과는 별도로 강일원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Ⅲ

아무쪼록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통해 검찰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검찰개혁이나 검찰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검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5일

검 찰 총 장 **윤 석 열**